

이원재 1차관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 개최

- 자재 수급 현황, 건설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8일(월)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, 건설업계,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, 레미콘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시멘트,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,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, LH에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.
-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공감하며, 6개 단체 공동으로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.
- 이 차관은 “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%, 레미콘은 30%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,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”면서,
- “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,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- 이어 이 차관은 “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자재 생산, 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,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물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2. 11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